

칼럼

김 화 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아산 정주영의 디지털 성지

충청남도 서산 일대의 해안 지역은 방하길 끝 무렵인 약 2만 년 전까지만 해도 해수면 위로 드러나 있었다.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금과 같은 섬이 많고 복잡한 형태의 해안선이 형성되었는데 관광객들이 보기에 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교통과 교역에는 매우 불편하고 위험한 지역이었다. 고려 인종이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연결하는 굴포운하 건설을 시도했는데 중도에 포기 되고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다.

이 지역은 한반도에서 간척사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다. 간척에는 수심이 얕은 연안을 매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규모가 큰 간척은 방조제를 쌓아 바다를 가로막는 방식을 쓴다. 천수만 뒀 쪽에 있는 간월도 좌우 두 개의 서산방조제가 대표적이다. 간월도는 이름 그대로 섬이었는데 간척 과정에서 육지가 되었다.

간월도 우측에 서산A지구 방조제라고 명명된 6.5킬로미터짜리 긴 둑이 있다. 이 방조제가 바다를 막아 1935만 평의 농지와 담수호인 간월호가 생겼다. 서산B지구방조제는 A보다 훨씬 짧다. 1188만 평 농지와 부남호가 탄생했다. 1995년 8월의 일이다. 1980

년 5월에 현대건설이 매립공사를 시작해서 준공에 15년 3개월이 걸렸다.

1984년 2월 25일에 그 유명한 A지구 최종 물막이 공사가 있었다. 공사 최대의 난관은 양쪽에서 쌓아 들어온 두 제방을 서로 연결하는 작업이었다. 두 제방 사이의 거리는 270미터. 강한 조류의 유속이 초속 8미터로 너무 빨랐다. 토사와 암석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바로 유실되었는데 조류는 10톤짜리 바위도 가져 없이 밀어내 버렸다.

공사를 직접 지휘했던 고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23만 톤에 322미터 길이인 대형 유조선(VLCC)을 울산에서 불러 조류를 가로막은 후 가라앉혀 물막이가 성공했다. 이 물막이 공법은 유조선 공법이라고 부른다. 일명 '정주영 공법'이라고도 한다.

서산 방조제가 완성된 후 7년간의 제염작업 끝에 여의도 면적 33배의 새 농지가 탄생했다. 덕분에 오지였던 서산과 태안 지역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른바 '서해안 시대'가 개막되었다고도 했다. 노태우 정부(1988~1993)는 팽택, 아산, 서산, 당진 지역에 자동차와 석유화학 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했고 1990년에 당진을

거쳐 가는 서해안고속도로도 착공했다. 오늘날 현대오일뱅크와 현대제철도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B방조제 동쪽 끝 부근에 2005년 설립되고 2011년에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된 현대서산농장이 있다. 현대건설이라고 큰 글씨로 표시된 사일로가 있는 미국종합처리장과 2500마리가 넘는 한우를 사육하는 한우목장이 있는 곳이다. 1998년 6월 아산의 역사적인 통일소 방북 때 주인공 1001마리 소들이 이 농장 출산이었다. 농장 한쪽에는 아산기념관이 있다. 아산이 현지 채류 시에 쓰던 건물이다.

글로벌 한국인이었지만 농부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평생 소중하게 여겼던 아산은 회고록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서산농장은 내게 농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곳은 내가 마음으로, 혼으로 아바님을 만나는 나 혼자만의 성지 같은 곳이다"

A 지구는 오늘날도 전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B 지구는 농지 외에도 현대자동차 직선주행로, 한국타이어 주행사험장, 현대에코에너지 태양광발전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식량의 자급자족이 국가적 과제였던 간

척 당시와는 한국의 경제 상황과 산업구조가 많이 달라져서 간척지의 농지로서의 가치도 변했다.

2017년 6월 현대모비스가 B지구에 여의도 절반 34만 평 규모로 자율주행 연구개발이 가능한 첨단 주행시험장을 마련했다. 3천억 원이 투자되었다. 현대모비스는 2019년 10월에 여기서 KT와 함께 5G 커넥티드카 기술교류 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5G 네트워크는 자율주행차와 도로환경을 이어주는 핵심 매개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시대는 자동차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의 수가 줄어들어 맞춤형 조립생산의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삼성전자가 2017년에 전장과 커넥티드카 시스템의 감자 미국의 허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했고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모비스에 연구개발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는 완성차보다 고부가가치 부품이 더 중요해진다는 이유다.

현대모비스는 아산이 1977년에 현대정공으로 설립했던 회사다. 아산이 서산 방조제 공사 시 현장에서 사용했던 겔로퍼 한 대가 아산기념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현대정공(제네시스 생산라인이 있는 오늘날의 현대자동차 울산 5공장)이 만들었던 차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서산농장과 간척지는 현대의 뿌리인 현대건설이 현대 글로벌 성장의 중추 현대정공의 도움으로 조성했다. 창업자 아산이 마음의 성지로 삼은 곳이다. 디지털 시대 미래의 현대를 책임질 신세대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성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社 說

어린이제품 유통체계 강화해야

정부는 소비자가 어린이제품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사용연령 기준을 세분화하고 제품의 위해도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또 영세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업체를 위해 시험·인증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안전 관리에 관한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9일 제품안전심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수립한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데다가 대다수 제조·유통업체가 영세한 탓에 제대로 된 제품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의 빈틈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2차 계획은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유통 관리 및 소

비자 보호 강화 ▲기업의 안전관리역량 강화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안전문화 확산 등 4대 전략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15개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관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한다.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이미 지정된 17개 이외에 2021년까지 10개를 추가 지정해 전체 어린이제품에 대한 세관장 확인 대상 비중을 올해 50%에서 2021년 80%까지 늘린다.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하는 정기 합동점검은 현재 일부 희망하는 지자체 1~3곳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한다.

어린이는 위해요소 매우 취약하기 어린이제품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시장에서 말뚝이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명 알콜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은 주택용소방시설로 지키세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2020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기점으로 어김없이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다. 추운 날씨로 오랜 기간 미사용한 난방기구 고장 및 조작 미숙 등으로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화재가 명확히 예상되는 계절인 만큼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 드린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불의 사용이 늘고 실내에서 활동이 증가하는 등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 그 중 단독주택(97.1%) → 공동주택(2.3%) → 기타주택(0.6%) 순으로 주거시설 중 단독주택의 화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

택의 경우 각 지역 소방서에서 다각도로 지속적인 화재예방에 노력을 기울임에도 화재 발생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화재는 발생 횟수가 적을 뿐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한번의 발생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니 독자 모두 화재 예방 임하는 자세를 더욱 신중하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

오병준 / 합평소방서 합평119안전센터

등록번호 광주가 0024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경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언론진흥재단